



3면

이원택 "100년 먹거리 퍼지컬AI 수도 전북"

전주매일

5면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 본격화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음 4월 11일) 제39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6·3 지선 어느덧 종반전

후보자들, 거리 유세·공약 발표·지역 순회 등 나서... 유권자들에 지지 호소
29~30일 사전투표 도내 243곳·본투표는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 도내 557곳서

지난 21일부터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전북 지역 선거 열기도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이제 7여일만을 남겨놓아 선거가 종반전을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는 거리 유세와 공약 발표 지역 순회 등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자신의 정책공약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전북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 선거 행위 단속과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투표 공보물을 직접 발송해 유권자에게 모두 도달했다.

선거 공보물은 여러 후보자의 것을 모두 모아 발송한 관계로 상당한 분량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도내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현황도 공개했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전주실내체육관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 도내 243개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55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때 투표는 자신의 주소지 소재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개표는 투표 종료 이후 각 지역 지정 장소에서 바로 진행된다.

전주 완산구는 화산체육관, 덕진구는 동물원 옆 실내 배드민턴장, 군산은 월명체육관, 장수는 장수종합실내체육관 등 14개 시군 지역 지정된 곳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도덕성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경선 결과가 사실상 본선 결과로 이어져서 하나 마나 한 선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의

도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 일부 지역 도·시·군의원 선거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재·보궐선거로 치러지는 2곳의 국회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시행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표율도 예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금권 선거 의혹과 각종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도 온라인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다수 퍼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도덕성, 청렴성 등을 꼼꼼히 검증해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전북의 미래 비전과 지역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반드시 선택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잘 싸웠다 전북 선수단”... 전국소년체전 폐막

선수 등 1290여명 38개 종목 출전... 금 7·은 24·동 36개 획득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체육의 꿈나무들이 명승부를 펼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진 제5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총 67개(금메달 7개·은메달 24개·동메달 36개)의 값진 메달을 획득했다.

선수과 임원 등 약 1,290명이 출전한 전북 선수단은 38개 종목에 출전 정정당당 승부를 펼치며 고른 활약을 펼쳤다.

당초 전력분석 결과 전체적인 전력

이 다소 약세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체 획득 메달 수가 전년(59개)도 대비 8개를 더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기록 종목인 수영과 볼러, 체조, 양궁 등에서는 전년도보다 향상된 경기력을 선보였고, 체급 종목인 태권도와 씨름,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도 다수의 메달을 수확했다.

유도 종목에 출전한 이승후(인후초)는 종목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볼러 종목에서는 중등부 여자 단체전(계주 3,0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농구(전주남중)와 배구(전주근영중),

축구(전북체중), 핸드볼(송학초, 정읍서초) 등의 단체 종목에서도 값진 메달이 쏟아져 나왔다.

대회 기간 전북체육회는 전북스포츠과학센터와 선수트레이너(AT지도자)를 파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정강선 회장은 "학교체육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며 "체육 꿈나무들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와 달리 시도별 종합순위는 발표하지 않는다.

/뉴스



증가기준 8000 넘긴 코스피

코스피가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코스피 8000p 돌파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시 제공)

‘뻔한 여행은 그만... 머무는 관광이 대세’

도, '전북 체류형 관광 비전 발표'

웰니스·미식 등 통해 체류시간·지역 소비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 관광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에 오래 머물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6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체류형 관광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전북도는 웰니스·미식·아간관광·위케이션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 방문객은 2,52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48만명 증가했으며, 숙박 방문객도 11만명 늘었다.

체류시간은 전국 2위를 기록했지만 관광 지출액은 전국 13위 수준에 머물러, 소비 확대를 위한 체류형 관광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우선 '웰니스 관광' 육

성에 힘을 쏟는다. 원주 소양외의 아원고택, 무주 태권도원, 진안 홍산스파 등 도내 웰니스 관광지 30곳을 중심으로 치유·명상·문화체험 콘텐츠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국비 포함 27억원을 투입한다.

미식 관광도 확대한다. 군산의 섬해진미, 남원의 하동·어란요리, 완주의 로컬푸드 퓨전메뉴 등 지역 대표 먹거리를 관광 콘텐츠로 육성한다. 전북도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음식관광 인증제와 전북형 푸드로드 개발 등 미식관광 모델 구축에도 나선다.

아간관광 콘텐츠도 강화된다. 전주시는 '아간관광특화도시' 사업을 통해 리버마켓, 달빛한잔, 심야극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주는 안성 낙화놀이와 반딧불이 탐

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안은 변산 비치립 운영 지역을 격조와 모항까지 넓힌다. 경기전과 군산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야간 행사도 함께 추진된다.

일과 휴식을 결합한 위케이션 사업도 본격화된다. 전북도는 14개 시군 전역에서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 로컬 체험을 연계한 전북형 위케이션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40개 기업과 프리랜서 등 1,317명이 참여했고 신규 위케이션 공간 34곳이 발굴됐다.

전북도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육성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소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인구 유입 등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해 갈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주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 현재 추진중인 문체부의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공모에도 적극 대응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이민호기자

